

# 양탄자 탄 알라딘처럼... 규제풀려 VR 테마파크 탄생

**콩 VR 테마파크 서면·강남역점 ICT규제 샌드박스 특례 후 선보여 전자과적합 VR 어트랙션 6종 설치**



방문객들이 모션디바이스의 신규 VR 어트랙션 '아라비안나이트'를 체험하고 있다. /모션디바이스

“저희 모션디바이스는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하드웨어, 콘텐츠, 그리고 매장까지 결합돼 융·복합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법도 규제도 거미줄 같이 촘촘히 엉켜 풀기가 어렵습니다. 각 부처 간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죠. 그렇기에 규제 샌드박스가 없었으면 이렇게 빠르게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규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정부에서 더 노력해 주셔서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이 도전하는데 장애물을 없애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종찬 모션디바이스 대표이사는 4일 'KONG(콩) VR 테마파크' 강남역점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는 5일 KONG VR 테마파크 서면점과 함께 문을 여는 KONG VR 테마파크 강남역점은 지난 5월 모션디바이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후 처음 선보이는 매장이다.

KONG VR 테마파크 강남역점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전자과 적합성 평가 실증특례를 받은 신규 VR 어트랙션 6종이 설치됐다.

모션디바이스는 몰입감과 현장감이 극대화된 VR 콘텐츠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테마파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되기 전까지 모션디바이스는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출시하기 위해 게임산업법상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다.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용품

안전확인서'를 받아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 VR 모션 시뮬레이터가 기기당 최대 3kW급의 고성능 출력 모터를 여러 개 사용하기에 '전자과 적합성 평가'도 필요했다.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제품마다 그 구조가 달라서 전자과 적합성 평가를 각각 받아야 했다. 여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올해 초 ICT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인증이나 평가 등 규제로 인해 기존에 들었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모션디바이스 이진현 영업총괄 이사는 “규제 샌드박스가 없었으면 신제품

을 내놓는데 6개월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됐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모션디바이스는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콘텐츠와 하드웨어를 함께 만든다는 점이다. 콘텐츠에 딱 맞는 기기를 개발해서 화면과 움직임을 결합해 실제처럼 느껴질 수 있게 한다. 콘텐츠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자사 제품으로 VR 테마파크 기기 대부분을 채울 수 있다. 모션디바이스 김수한 이사는 “VR 어트랙션 10종을 포함해서 강남역점에 들어온 기종의 90%는 저희가 하드웨어부터 콘텐츠까지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KONG VR 테마파크 강남역점은 약 200평 규모의 매장에 VR 어트랙션 10종, 립스케일 6종, 아케이드 게임 5종 총 21종 41대 VR 모션 시뮬레이터가 들어갔다. 이는 동시에 61명 체험할 수 있는 규모다. 김수한 이사는 “강남역점이 저희가 운영하는 매장 중에서 가장 큰 곳으로,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VR 테마파크 중에서는 최대 규모고 기종도 제일 많다”고 말했다.

KONG VR 테마파크 서면점은 복합 문화공간 피에스타 건물에 위치하며, 약 100평 규모의 매장에 VR 어트랙션

10종 21대가 입점했다.

이 두 매장에 들어가는 신규 VR 어트랙션 6종은 양탄자를 타고 알라딘이 되어 아그라바를 여행하는 4인용 라이더형 VR 어트랙션 '아라비안나이트', 픽업트럭에 탑승해 좀비들을 퇴치하는 어트랙션 기반의 VR FPS 게임 '좀비타운' 탱크, 대공전차와 헬리콥터를 타고 벌이는 팀 대항 VR FPS 게임 '기계화대전', 모션체어에 탑승해 VR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체감형 VR 어트랙션 'VR 시네마', 미션을 찾아 저택의 방을 탈출하는 호러 어드벤처 VR 방탈출 '제물', 레이싱 게임 '프로젝트 카스'다.

모션디바이스는 VR 모션 시뮬레이터 제작 기술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 이미 일본의 세가(SEGA)의 자회사인 조이폴리스와 협력해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 중국 베이징에도 7월 중으로 지점을 열 계획이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이종찬 대표는 “중국과 동남아는 규제가 약하고, 일본과 미국은 시장 규모가 크지만 이정도 라인업을 가진(VR 모션 시뮬레이터) 기업이 없다”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ericbae1683@metroseoul.co.kr

## 기보, 대만과 벤처기업 진출 지원 맞손

**보증기관 SMEG와 업무협약 '국제상호보증' 도입 적극 추진**



기술보증기금과 대만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간 '국제상호보증' 업무협약식에서 기보 조규대 전무이사(왼쪽)가 수원원 대만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직무대행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술보증기금은 대만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SMEG)과 손잡고 양국 혁신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상호보증'을 도입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만 최대의 보증기관인 대만 SMEG와 3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보의 국제상호보증 도입을 위한 협약은 태국에 이어 대만이 두번째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소속국의 기업이 상대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현지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국제상호보증'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보증제도 및 중소기업 정보교환, 기관 간 전문가 파견,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양국 간 혁신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기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제2벤처부 확산 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상호보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6월 스타트업 진출 수요가 많은 태국과 상호대보증 협약을 체결한 뒤 구체적 실행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기보는 대만 정부의 초청으로 타이베이에 있는 대만대학교병원 국제회의센터에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열린 '국제 기술가치평가 및 금융회의'에 강연기관으로 참석, 대만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을 교육했다.

대만 경제부 산업국과 석·박사만 4500명 이상 보유한 대만 최대 연구기관인 산업기술연구소(ITRI)가 주최한

이번 회의는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기술가치평가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 대만 금융기관 직원들의 기술평가에 대한 인식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만 보증기관 관계자는 지식재산(IP)의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보증 지원하는 IP보증에 큰 관심을 보이며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가치금액이 어떻게 산출되고, 산출된 금액이 어떤 식으로 보증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문의하고 향후 제도 도입을 위해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에이스 홈센터 “인테리어 무료상담 받으세요”

7일까지 '2019 코리아빌드' 참가

유진그룹은 자사의 홈 인테리어&건축자재 전문 브랜드 에이스 홈센터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2019 코리아빌드'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인테리어, 건축자재 상품을 갖추고 있는 홈센터는 이번 전시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소개한다.

특히 글로벌 건축자재 유통기업 '에이스 하드웨어'의 국내 독점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만큼 가성비 높은 에이스 하드웨어의 인기 PB상품들을 한 눈에 둘러볼 수 있도록 부스를 구성했다.

현장엔 유진그룹의 홈 인테리어&리모델링 전문 브랜드 홈데이의 전문 상담가가 상주하며 무료 인테리어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홈센터 부스를 방문



코리아빌드에 마련된 에이스 홈센터 부스 전경.

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전문가의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다양한 인테리어 고민을 해결할 수 있고, 인테리어 시공 및 신속 등 수준 높은 인테리어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전시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할인 판매 및 상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 웅진코웨이 이탈리아서 친환경 중요성 알린다

'베니스 디자인 2019' 참가

웅진코웨이는 오는 11월 24일까지 5개월 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베니스 디자인 2019'에 참가, 전 세계에 친환경 가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베니스 디자인은 유럽문화센터가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 전시회로 124년 전통의 세계 최대 미술제인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과 동시에 펼쳐진다.

웅진코웨이는 특히 이번 베니스 디자인 2019에서 디자이너 유영규와 협업해 공공장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

공하는 음수대인 '워터 리필 스테이션' 콘셉트 작품을 선보였다. 여기에는 공공 음수대의 효용성을 높여 플라스틱 생수병 소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 동참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워터 리필 스테이션은 웅진코웨이의 차별화된 필터 기술력을 적용해 각종 오염 물질을 제거한 깨끗한 물을 제공한다. 음수대에 탑재된 디스플레이 화면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줘 안심을 더했다. 도시 곳곳에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수질과 위생에 대한 신뢰가 낮아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 착안했다. /김승호 기자

## 바디프랜드 냉·온풍 시스템 안마의자 출시

바디프랜드가 세계 최초로 계절과 관계없이 온도를 조절해 사용할 수 있는 냉·온풍 시스템 안마의자를 내놓았다.

바디프랜드는 냉·온풍 시스템을 적용한 안마의자 '파라오II COOL'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안마의자 냉·온풍 시스템은 허리, 옆

구리, 엉덩이 부분 시트의 구멍에서 찬 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나와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고 쾌적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 냉풍과 온풍을 각각 3단계까지 작동시키면 되고, 온도는 최저 16도에서 최고 50도까지 조절할 수 있다. /배한님 기자



/바디프랜드